

WINTER 2016 Vol. 77

또 하나의 나,
우리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기구로
8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인 신뢰를 인정받아 온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 6천 5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 및 지역사회 주변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보건의로,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CONTENTS

또 하나의 나, 우리 WINTER 2016 Vol. 77

04 Plan Report 1
세계여자아이의 날

08 Plan Report 2
Future of Girls, Our Future

12 우리는 플랜가족 1
2016 후원자 어워드

16 아주 특별한 만남
세계 어린이의 날 기념, 코미디 페스티벌

18 Plan Board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세상을 바꾸는 천원

20 플랜 긴급구호
초강력 허리케인 매슈

24 우리는 플랜가족 2
하고운 후원자

26 지구촌을 간다
송재민 후원자 - 후원아동 방문기

28 Plan Board
The 좋은 선물

30 나눔의 행복
현대제철

32 꿈꾸는 아동편지

35 Enjoy Plan

36 Plan News

www.plankorea.or.kr 후원문의 1544-3222

f facebook.com/plan.kr t twitter.com/plankorea  @플랜코리아  @plan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이메일 kno@plankorea.or.kr
통권 제77호 발행일 2016. 12. 12 발행인 노영찬 발행처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22.5612



11
OCTOBER

세계 여자아이들의 평등한 삶과 권리를 응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녀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하기로 약속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주요 안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이, 성별, 국가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2016년 5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회 '위민 딜리버(Women Deliver)'는 약 6천 명의 지지자, 운동가, 정책 담당자, 전문가들이 참석한, 지난 10년간 가장 규모가 큰 여성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의 주요 주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여아 및 여성을 위한 목표의 현실화 방안이었습니다. 플랜은 이 회의를 주도하는 단체로서 시민사회와 민간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여아 및 여성 권리신장을 위한 정책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2030년까지 성(性) 데이터가 개선되어 여아 및 여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 여부는 데이터의 수집·분석·유포·사용 방법 개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소녀들은 공공장소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않는다.

 **6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함을 느끼지 않는다.

 **59%** 혼자서 공공장소를 걸어갈 때 안전함을 느끼지 않는다.

 **77%** 야간에 공공장소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않는다.

니카라과, 총 119명의 응답자 중 대답한 비율

부모와 성(性)과 연애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소녀들

 **94%** 어머니와 성과 연애 관련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한다.

 **69%** 아버지와 성과 연애 관련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한다.

니카라과, 총 119명의 응답자 중 대답한 비율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어디에도
소녀들이 진정한
성 평등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은
없습니다.”

— 플랜인터내셔널 대표 안네-버짓 알브렉센

COUNTING THE INVISIBLE

보이지 않는 소녀들도 세어주세요.

2007년부터 플랜은 여아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 여아 실태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매 해 하나의 다른 주제를 다루어 여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국제적 안건으로 확고히 올려놓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16년 보고서의 주제는 'Counting the Invisible-보이지 않는 소녀들도 세어주세요'입니다. 그동안 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으로 수집되는 소녀 및 여성에 관한 데이터는 기준 연령이 15~49세로 한정되어 있어 15세 미만의 여아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은 공식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 소녀들이 조혼과 차별,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지, 15세 이전에 아이를 출산하는 소녀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인지, 평균적으로 하루 몇 시간을 노동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현실을 알아야 소녀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불완전하고 잘못된 통계자료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수많은 소녀들이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폭력과 불평등은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플랜은 이 보고서를 통해 성별에 따른 현황을 보여주고, 모든 소녀와 여성들을 위한 개선과정 및 변화를 위해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매해 출간되는 <세계 여아 실태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함께 지켜나가야 할 목표 이행에 있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소녀들은 중요합니다. 모든 소녀들이 세어질 수 있도록 플랜과 함께 소녀들을 응원해주세요!

교육 기회에 대한 소녀들의 만족도

 **79%** 소녀들에게 중학교에 다닐 기회가 항상 있다.

 **66%** 소녀들에게 학교를 수료할 기회가 항상 있다.

 **91%** 자신들이 받은 교육의 수준에 만족했다.

 **90%**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적절한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니카라과, 총 119명의 응답자 중 대답한 비율

대다수의 소녀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72%** 소녀들에게 중학교 수업을 들을 기회가 항상 있다.

 **33%** 소녀들에게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다닐 기회가 항상 있다.

 **89%** 교육은 적절한 직업을 가질 기회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짐바브웨, 총 121명의 응답자 중 대답한 비율

가족의 안정을 위해 폭력을 견뎌야 한다고 믿는 소녀들

 **84%** 남성들이 여자친구 혹은 부인에게 폭력을 쓰는 것을 받아들이 수 없다.

 **68%**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여성들이 폭력상황을 참아야 한다.

짐바브웨, 총 121명의 응답자 중 대답한 비율



'COUNTING THE INVISIBLE'
보고서 보기



10월 11일 세계 여자아이의 날

WHAT A DAY!

세계 여자아이들의 평등한 삶과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계 여자아이의 날, 전 세계 곳곳에서 다채로운 Takeover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소녀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50곳 이상의 지역에서 소녀들은 250개가 넘는 역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일일 대통령, 국무부장관, 정치인, 언론인, 회사원, 교사, 의사, 경찰 등 다양한 역할로 변신하여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네팔의 17세 소녀 사주는 네팔 첫 여성대통령인 비디야 데비 만다리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소녀들의 권리신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모의 국회를 열어 전국에서 모인 소녀들과 함께 네팔 여아들이 처한 현실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1명의 청소년 대표들이 여성가족부와 노동부를 방문하여 각 기관의 주요 업무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간다의 8세 소녀 타이라는 국방부 장관인 카툼바 와말라의 집무실을 방문하여 그의 역할을 대신 수행했습니다. 카툼바 장관은

“우간다 군의 지휘관들은 모두 남자입니다. 우간다의 헌법이 여성도 지휘관으로 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각 지역에서 대표로 선출된 소녀들이 일일 경찰 체험을 하며 소녀들과 아이들의 고충을 듣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우간다, 엘살바도르, 미국의 소녀대표단이 소녀들의 권리와 성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소녀들이 유엔에 모여 소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당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플랜의 홍보대사이자 MSNBC의 앵커인 리차드 리우는 소녀들에게 TV 방송국을 소개해주고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증진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 미디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BECAUSE I AM A GIRL과 함께하는 홍보대사

카티아 & 그반차 부니아티쉬빌리
Khatia and Gvantsa Buniatishvili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루지아 피아니스트 자매

“가정형편이 좋지 않던 시절에 어머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미래는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소녀들이 교육을 받고, 그들의 권리를 알고, 역량이 강해지고,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녀들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토니 가르 Toni Garrn

캘빈 클라인, 디올, 샤넬 등 패션쇼에 다수 선 세계적인 모델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태어난 나라와 상관없이 모든 소녀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레나 헤디 Lena Headey

TV드라마 [왕좌의 게임] 배우

“소녀들이 여성 할레라는 해로운 악습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녀들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성과 소녀를 비롯해 남성, 소년들도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줄리안 허프 Julianne Hough

미국 가수 겸 배우

“전 세계적으로 6천 2백만 명의 소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이 6천 2백만 명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소녀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변화가 찾아옵니다.”

리처드 루이 Richard Lui

NBC/ MSNBC의 앵커이자 리porter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에 감사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이 운영된 국가에서 소녀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성과 소년을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를 지원하는 것이 세대간에 걸친 가난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프리다 핀토 Freida Pinto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2008)]와 [혹성탈출(2011)]의 배우

“저는 모든 개인의 힘, 특히 모든 소녀의 힘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준다면, 소녀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가난에서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FUTURE OF GIRLS, OUR FUTURE

소녀들의 이야기

“저는 14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매일 술을 마시고 저를 때렸어요.

결국 겨우 두 살 된 딸을 데리고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 만티 데비 람, 네팔, 18세

두 살 된 딸을 달래며 대답하는 만티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조혼해 곧 남편 집으로 가게 된다는 여동생에 막내까지 일곱 식구가 살기엔 한없이 비좁아 보이는 만티의 집은 제대로 된 살림살이 하나 갖추지 못할 만큼 가난해 보였다. 부모님은 식구 하나라도 줄여보려고 만티를 일찍 결혼시켰지만, 짧았던 결혼 생활은 만티에게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를 남겼다. 이른 출산 때문에 망가진 몸으로 만티는 아이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마저도 벽돌공장이 쉬는 날이면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없다.

만티의 부모님은 남편의 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된 딸이 가여워 마음이 아프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동생 역시 조혼시킬 수밖에 없었다. 일곱 살 막내 역시 15세가 되면 결혼시킬 생각이라고 한다. 만티가 살고 있는 네팔 라우타하트의 작은 마을에서 조혼은 당연하고 만연한 오래된 풍습이다.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조혼했지만 남편의 폭력이 지속되는 등 안정적인 가정생활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된 많은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은 법적 절차가 까다로워 대다수 이혼하지 못한 채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살 시타 역시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도망쳤지만 이혼하지 못한 채 집안일과 밭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약 1,500만 명, 매년 조혼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전 세계 소녀들의 숫자이다.

이것은 2초에 1명의 여자아이가 조혼으로 자신의 삶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집안일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혼은 여자아이들의 권리를 해치는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조혼이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명의 여자아이가 19살 미만의 나이에 조혼을 강요당하고 있다. 성인이 되기 전에 결혼한 여자아이들은 폭력, 착취 그리고 성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다. 이는 곧 HIV/AIDS 같은 성 관련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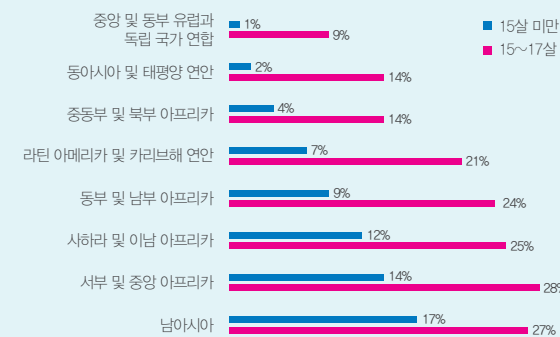
“지금 제 삶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행히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결혼에 실패한 여자가 네팔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간호학교로 진학해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 프라티마 쿠마리 사하, 네팔, 18세

곧 스무 살이 되는 프라티마 역시 14살에 부모님의 강요로 조혼을 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은 프라티마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위협했다. 결혼 생활을 회상하던 프라티마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다.

프라티마는 마을의 활동가들과 함께 플랜의 조혼반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더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다행히 캠페인 활동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한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조혼의 숫자도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대륙별, 17세 이하 여아 전체 인구 중 조혼한 여아의 비율



출처: 유네스코, 전 세계 20~24세 여성들에 대한 국제 조사 (National Surveys of women aged 20-24) 2005-2013

조혼이 발생하는 5가지 이유

1. 어릴수록 더 순종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2. 여성은 결혼하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3. 딸의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 지참금의 비용이 커진다.
4. 조혼을 금지하는 법의 강제성이 약하다.
5. 성인 남성 비율이 더 높아, 결혼 가능 성인 여성이 부족하다.

소녀, 꿈에 날개를 달다

여자아이들도 교육을 통해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빈곤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하고 충분한 정보를 통해 자신들의 성 건강과 양질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급격히 어려워진 가정형편 때문에 조혼의 위기에 처했던 아스미타는 플랜에서 진행한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재봉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어머니는 조혼 대신 직업훈련을 받겠다는 아스미타를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옷을 만들며 꿈을 이루어가는 딸이 자랑스럽다. 예전보다 수입도 넉넉해졌다.

“무엇보다 딸이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좋아요.”

플랜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센터에서 6개월간 미용기술을 배운 예이키는 이제 뷰티샵을 운영하는 대표다. 아침마다 샵 문을 여는 일이 너무 행복하다는 예이키는 플랜을 만나 직업 훈련을 받게 된 것이 큰 행운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

이 나 제법 단골도 생겼다. 예이키가 사는 캄보디아의 라타나키리 작은 마을에서도 15세가 되면 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예이키의 부모님은 조혼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가정 형편상 학교를 계속 다닐 수는 없었다. 다행히 플랜의 도움으로 직업 훈련을 받고 직접 샵까지 차리게 되었다.

플랜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센터에서는 미혼모, 학교를 그만둔 여자아이들 등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재봉, 미용기술, 자동차 정비 등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6개월째 재봉 기술을 배우고 있는 픽로운은 쉬는 날에도 열심히 연습하는 우등생이다.

“직업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한 인성과 태도도 함께 배우고 있어서 정말 좋아요.”

곧 센터 교육을 수료하는 픽로운은 자신만의 가게를 운영하는 재봉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녀들

수많은 소녀들의 삶을 앗아가고 있는 조혼으로부터 여자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플랜은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조혼의 예방과 발생 시 대응, 조혼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녀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15살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조혼의 위기에 처했던 로크함 피제이는 부모님을 설득해 의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플랜이 운영하는 포토보이스 활동에도 참여하며 마을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 특히 조혼과 가정폭력에 대해 사진과 발표자료를 직접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다.

“포토보이스 활동을 계속할수록 마을 사람들 인식이 바뀌는 게 보여서 힘이 나요.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할 거예요.”

포토보이스와 같이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커뮤니티 그룹 활동은 마을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플랜의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마을이 변화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한 소녀들은 또 다른 소녀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날까지 플랜과 소녀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녀들,
소녀들의 미래가 곧 우리들의 미래이다.

Future of Girls, Our Future.

* 더 자세한 소녀들의 이야기는 아리랑 프라임 Future of Girls, Our Futur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녀들의 이야기 영상보기



— 아스미타 쿠마리 사하 파스완, 네팔, 16세



— 예이키 켄, 캄보디아, 18세



— 로크함 피제이, 캄보디아, 18세

2016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2016년 한 해도 한 분 한 분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2016 제4회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에는 조운호 홍보대사, 시상에는 김성령 홍보대사가
함께 해주셨으며, 메가박스의 공간 기부와 세계 초콜릿 어워드에서
3등 브론즈를 수상한 로스팅 마스터즈의 초콜릿 기부,
김상준 포토그래퍼의 재능기부로 제4회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는 더욱 풍성했습니다.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조금은 특별한 스토리로
후원자 어워드 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소개 드립니다.



2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The좋은후원상
이종헌 후원자님은 1996년부터 후원을 시작 하신, 플랜코리아의 원년 후원자입니다. 20년 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동에게 사랑을 전해 주시는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후아유상
1997년부터 아름답게 후원을 유지해주시는 홍재숙 후원자님 덕분에 아이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한 걸음 다가 갈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상
양상진 후원자님은 강릉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세면도구 판매수익금은 플랜코리아에 기부해주고 계십니다. 따뜻한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따뜻한 세상을, The좋은스토리상
2015년 플랜코리아 직원들이 뽑은 상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The좋은스토리상은 장희원 후원자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머 리카락을 잘라 환우회에 기부하는 등 따뜻한 마음이 정말 예쁜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요, The좋은파트너상
올 한 해 플랜코리아를 알리는 곳에는 어디 든 나타나 함께 해준 JDB엔터테인먼트 소속 사 모든 연기자들이 이 상의 주인공입니다. 김대희 홍보대사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원아동에게 힘과 용기를, 서신교류상
4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계신 한소정 후원자님 이 올 한 해 보낸 편지만 27통입니다. 아동과 일상을 나누며 후원아동에게 힘과 용기를 주 시는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후원하는, The좋은가족상
결혼기념일마다 한 명씩 아동후원을 늘려가 시는 김중현, 장연이, 김은재 후원자님은 온 가족이 함께 후원해주고 계시는 가족 후원자 입니다. 가족과 함께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후원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나눠요, 자원봉사상
플랜코리아 사무실에서, 그리고 집에서 번역 으로 도와주시는 주소영, 신유화 봉사자님이 있기에 플랜코리아는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 었습니다. 플랜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봉사자 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든든하게 협력하는, The좋은기업상
협력사의 지원으로 지구촌 아이들에게 사랑 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2 년부터 1004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으며, 세네갈 학교 건축 및 에티오피아 태양광 인 터넷 스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든든하게 협력해주시는 삼성전자 수원사 업장 사회봉사단의 이수경 차장님께 큰 감사 를 전합니다!

플랜과 함께 걸어요, The좋은동행상
2002년부터 플랜코리아 후원을 시작으로 지 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사랑을 전해주시는 김 성령 홍보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김성령 홍보대사님이 있기에 플랜코리아는 더욱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플랜코리아는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플랜코리아를 사랑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구촌 모든 아이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날까지 함께해주세요!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린이의 날 기념 코미디 페스티벌

지구촌 아이들에게 웃음과 꿈을 선물하기 위해
JDB엔터테인먼트 소속 개그맨과 플랜코리아 그리고 에버랜드가 아주 특별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자는 취지로 코미디 페스티벌을 마련한 것. 이번 '코미디 페스티벌'은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인
JDB엔터테인먼트 개그맨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유민상, 권재관, 조운호, 정경미, 이승훈 등의 인기 개
그맨들은 인기TV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니글니글, 도망
자, 투맘쇼, 리얼사운드 등의 인기 코너를 직접 공연해
관람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연은 각 회차마다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
이면서 그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에서는 플랜코리아
와 함께한 두 번의 봉사활동 영상이 방영되어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이 밝은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나
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JDB
엔터테인먼트는 플랜코리아와 함께 베트남 띠네마을
과 까이붕 마을에 식수 위생 시설지원 놀이시설 지원
을 통해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Joy & Dream 프로젝트라는 지역개발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신나는 코미디 페스티벌과 더불어 극장 밖에서는 지구
촌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다양한 부대 행사
도 함께 진행되었다. JDB엔터테인먼트 소속 홍보대사
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이벤트, 지구촌 어린이들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 트리, JDB엔터테인먼트
개그맨들의 봉사활동 사진전, 개도국 아이들의 삶을 생
생한 3D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VR 영상 체험 등 지
구촌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또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사진: 포토그래퍼 원상희, 에버랜드 홍보팀





세상을 바꾸는 천원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국내발 국제선 항공권에 1,000원씩 부과되며,
아프리카의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해 사용됩니다.

항공권 구매

기여금 조성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아프리카 지역 빈곤과 질병 퇴치

사업발굴



제1기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사업

플랜코리아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수행 NGO로 선정되어 2008년부터 세네갈에 5개년 사업, 부르키나 파소에 3개년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질병퇴치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진행국가: 세네갈

기간 2008-2013

내용 총 6개 의료지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결핵, 지역 풍토병 등의 질병 관리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통한 의료 보건 시스템 강화 사업 진행



진행국가: 부르키나 파소

기간 2010-2013

내용 총 10개 의료지구에서 HIV/에이즈 검진 지원, 2차 감염 예방, 보건인력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통한 임산부 대상의 HIV 유행 및 모자수직감염 예방 사업 진행

지원배경

사하라 이남 최빈국 지원

아프리카는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49개국 중 33개국(약 70%)가 집중된 지역으로 빈곤과 질병 문제가 심각하며,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률도 저조한 곳입니다. 특히 보건 분야는 새천년개발목표 중 가장 달성률이 낮은 분야이며, 개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건강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에 대한 투자 실적은 저조합니다.

〈지역별 MDG4(아동사망률 감소) 달성 정도〉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감소가 진행 중
1990-2006년 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감소 비율이 4% 이상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지 않음
-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감소가 더딘 진행 중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감소 비율이 1%~3.9%
- 데이터 없음

(출처: Unicef)

〈1인당 보건지출(2007)〉



- 25 USD 이하
- 51~100 USD
- 301~1000 USD
- 5000 이상
- 데이터 없음
- 26~50 USD
- 101~300 USD
- 1001~5000 USD
- 해당사항없음

출처: WHO
이미지 출처: KOICA

제2기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사업

부르키나 파소의 HIV 유행 및 모자수직감염 예방지원사업

올해부터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서 'HIV 유행 및 모자수직감염 예방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2기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사업에서는 1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르키나 파소 4개 군, 총 8개 의료지구의 산모 및 신생아의 HIV 감염 및 유행 감소를 목표로 활동을 진행합니다.



진행국가: 부르키나 파소

- | | |
|-----|---|
| 사업명 | HIV 유행 및 모자수직감염 예방지원사업 |
| 기간 | 2016-2018 |
|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전 산모 HIV 진단, HIV 양성 산모 대상의 추적 관리 및 추가 검사 진행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대상의 통합 추적 관리 실시: 신생아 대상의 HIV 검사 지원, 양성 산모와 신생아 대상의 2차 감염 예방 지원 의료인력 교육 지원 남성 포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HIV 유행 및 모자 수직감염 예방 인식 개선 활동 |
| 지역 | 방, 사마텝가, 나마텝가, 쿠리텝가 4개 군 |
| 수혜자 | 4개 군 지역주민 약 199만 명 |

산모
약 12만 명

가임기 여성
약 47만 명

초강력 허리케인 매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매슈는 최근 십 년간 발생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난위기상황에 특히 취약한 존재는 아이들입니다. 플랜이 아이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대응활동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도 바로 아동보호입니다.”

— 플랜아이티 대표, 마리 피에르

현지시간으로 10월 5일, 4등급(최고 5등급)허리케인 ‘매슈(Matthew)’가 북미 카리브해 지역 아이티를 강타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매슈로 초토화된 아이티에는 사망자가 900명 가량에 이르며, 이재민도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장비 기계 및 인력의 부족, 각종 여건 악화로 여전히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논밭은 침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길이 무너져 복구 작업과 구호 물품 전달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해 각종 수인성 질병인 콜레라, 설사병 같은 병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유해한 질병을 옮기는 모기와 같은 해충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플랜은 위생키트, 주방용품, 매트리스, 담요와 같은 생존필수품을 수재민들에 긴급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식량, 식수, 위생용품 보급을 비롯해 매트리스, 담요 등 가장 필요한 물품들을 우선적으로 배포했습니다.

특히, 재난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친화 공간 조성, 심리 치료, 교육 지원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우선순위로 설정했습니다.



긴급구호 후원하기

후원전화 ARS 060.700.1170 (한 통화 5,000원)

플랜코리아 홈페이지(www.plankorea.or.kr) ▶ 후원하기 ▶ 사업후원

▶ 긴급구호 ▶ 긴급재해지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어린이 60만 명을 포함하여

약 140만 명



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에 감염된
사람은 어린이 약 1,000명을
포함하여

약 3,500명



극심한 굶주림과 위기 상황에

노출된 사람은 약 80만 명,
그러나 현재까지

약 40만 명
지원을 받음



재난위기 상황에서 가장 쉽게
폭력, 착취, 노동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어린이의 수
약 12만 5천 명



자료 출처 - Plan-International, UNICEF, OCHA

모든 것을 잃은 아이티,
그러나 여전히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아이티의 복구를 위해
플랜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잠금화면 캐시슬라이드!



매일 50번 이상 들여다보는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를 시작해보세요!



캐시슬라이드로 기부가 쉬워집니다!



1 앱 실행

캐시슬라이드 앱을 여세요
(캐시슬라이드 앱은 play스토어에서
다운 가능하며, 안드로이드에서만
실행 가능합니다)



2 상점>기부하기

앱을 열고 '상점'>'기부하기'를
선택해주세요



3 기부하기

플랜코리아 기부상품 선택 후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2017년 새해를 맞아
사랑스러운 후원아동에게
선물을 보내주세요

기간: 2016년 11월 14일 ~ 2017년 1월 31일

히트다히트!!

다시 돌아온 새해 후원아동선물 꾸러미
이벤트 시즌 2

형아
꾸러미

6만원

선물 구성: 문구세트/ 입체퍼즐 / 색연필
/ 종이비누 / 밴드 / 색종이 / 노트 /
종합장 / 손수건 / 한복 카드 /
연말연시카드 / 꽃말 엽서 / 인형 /
책가방 / 한복 스티커

아우
꾸러미

4만원

선물 구성: 문구세트/ 입체퍼즐 / 색연필
/ 종이비누 / 밴드 / 색종이 / 노트 /
종합장 / 손수건 / 한복 카드 /
연말연시카드 / 꽃말 엽서

선물 색상은 랜덤이며,
운송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주문: The좋은가게 (www.planshop.co.kr) 또는

전화주문: 플랜코리아 대표전화 (1544-3222),

The좋은가게 (02-516-5107)

- 주문 시, 배송지 설정과 상관없이 후원아동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자님의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후원자번호를 함께
배송요청사항에 적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함께 보내주세요!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구매 시 배송 요청 사항에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는 편지와
함께 전달해주세요'라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 번역 작업이 필요한 한글 편지는 1월 10일, 영어 편지는 25일까지
도착한 편지에 한하여 함께 발송이 가능합니다.
- 메일 letter@plankorea.or.kr로 보내주셔도 예쁜 편지지에 출력하여
보내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꾸러미세트만 구매하셔도 후원아동에게 새해인사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구매 시, 메시지 선택 가능)

- * 선물은 이벤트 기간 종료 후 2017년 2월 중으로 일괄 발송됩니다.
- * 운송비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개별 선물 추가는 불가능하나 중복 구매는 가능합니다.
- * 2명 이상의 후원아동에게 다른 선물을 발송하는 경우 배송요청사항에 선물별 아동의 이름과 국가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 * 꾸러미 선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좋은가게(www.planshop.co.kr)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선물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letter@plankorea.or.kr로 보내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원자인터뷰

하고운 후원자



내가 추구하는 삶

“후원을 통해, 제가 추구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후원은 제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블로그에서 후원자님 스토리를 봤어요. 학생들과 함께 후원을 시작하셨는데, 이야기가 참 따뜻해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 공문이 많이 오는데, 하루는 나눔 축제에 대한 공문이 왔어요. 기아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줬더니 그 중 두 명인가 다녀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알릴 수 있는 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해 담임으로 맡은 반 아이들에게 아동결연후원에 대해 이야기해주면서 같이 해볼까 제안했어요. 한 달에 천 원만 아끼면 후원할 수 있다고 하니 아이들도 좋다고 동의했죠. 블로그로 단체 몇 개를 추려서 아이들과 투표를 했어요. 그때 플랜코리아를 선택해 아이들과 학교와 반 이름으로 후원을 시작했죠. 후원은 나라도 투표로 정했는데, 아이들이 가나 초콜릿이 맛있더라 가나로 하고 싶다고 정했어요. 아동자료 받으면 사진과 프로필, 지역소개가 오잖아요. 아이들이 아동 자료를 정말 좋아하며 반 게시판에 붙여놓고 계속 봤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다같이 후원아동에게 롤링페이퍼도 썼어요. 아동후원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학급에서 1인1역이라고 칠판반장은 칠판을 지우고, 공기반장은 교실을 환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당 한 명씩 자기 역할을 맡아서 활동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나눔반장을 추가했어요. 학급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저에게 주면, 제가 나머지 금액을 채워서 아동후원을 이어나갔죠. 일 년이 지나고, 제가 다음 담임하는 반에서 후원을 지속하려고 했는데 학생 중 한 명이 찾아와서 자기가 후원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이 많이 들어서 자기가 후원하고 싶다고. 고3이라서 3만원을 스스로 낼 수는 없으니 아빠, 엄마, 자기 각 1만원씩 내고 대학교 가서는 자기가 3만원씩 내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후원을 꼭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때가 교사 생활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중 하나예요.

다음 번 담임을 맡았을 때 선배들이 이런 후원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니, 새로운 반 아이들도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아프리카 대륙만 선택했고, 짐바브웨 아동이 결연되어 왔어요. 아이들이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생소하니까 나라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후원아동에게 편지도 쓰고 그랬죠. 그 학교 떠나오면서 그 아동은 제가 계속 후원하고 있어요.

블로그를 보니 플랜코리아 아동후원 외에도 다른 후원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던데요. 후원하고 싶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곳에 조금씩 후원하고 있어요. 후원하게 되는 어떤 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나온 소설 중 김숨 작가의 ‘한 명’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현재 위안부 할머니 40분 정도가 살아계신데, 다 돌아가시고 한 명 남았을 때를 가정해서 쓴 소설이에요. 그걸 읽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애들하고 위안부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애들 앞에서 부끄러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려고 있으면 안되겠구나 싶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세월호의 경우는 어느 날 광화문을 지나면서 분향소에 들렀는데 이렇게 가만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원을 시작했죠. 그 순간 나에게 왔던 부딪힘을 잊지 않고 그 경험,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 후원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블로그에 보니 소득의 10%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후원자님께 후원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플랜코리아도 좋아하지만 ‘나눔문화’라는 후원단체도 정말 좋아해요. 거기서 봤던 문구 중 하나가 ‘적은 소유로 기쁨있게’. 그 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후원을 시작했고 적어도 이 정도는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연봉이 오르니까 점점 더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전에 아이들하고 목표 쓰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단기 · 중기 · 장기 목표로 나눴는데, 장기 목표에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후원을 해요. 현실에 좌절할 때도 있지만 큰 방향은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후원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일 다른 지인에게 후원을 추천한다고 한다면.

내가 추구하는 삶과 거리가 멀지 않게 만들어줘요. 좋은 사람이 되고 자하는 표현이고,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또한 죄책감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해요. 다른 활동에 참여하기는 힘들니까. 세상을 돕는 일 중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길거리 캠페이너를 만났을 때 다른 곳에 후원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애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네요. 말하다 보니 후원을 통해 얻는 게 훨씬 많네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 게 하나의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후원단체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은 단체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수업을 통해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고 지지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송재민 후원자의 잠비아 후원아동 방문기

후원을 신청하고 리디아의 사진을 받았을 때 내가 평생 살면서 사진 속 이 아이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러다가 언젠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 기회는 생각보다 금방 찾아 왔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고 아프리카 잠비아로 후원아동을 만나러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방문하기로 결심한 후 플랜코리아와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해 왔다. 놀란 사실은 플랜코리아 후원자 중에

잠비아 방문은 내가 처음이라는 점이였다. 내가 최초라는 것이 신기했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처음이라는 불안감도 들었다.

긴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한국에서 잠비아로 떠났다. 두바이를 경유하여 긴 비행시간 끝에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공항에서 또다시 음푸웨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고, 21시간의 대기과 2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현지 직원과 만났다. 정말 반가웠다. 미지의 땅 아프리카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잠비아 현지 사람을 보니 신기할 따름이었다.

차를 타고 음푸웨에서 치파타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원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방문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다. 직원 분과 사무실을 나와 후원아동 리디아 및 그 마을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난감, 마을의 생필품 등 선물을 사기 위해 마트로 향했다. 가는 길에 관광지로써 꾸며진 곳이 아닌 진짜 잠비아 현지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두렵기도 했고 대중매체에서 보던 모습과 비슷하여 많은 감정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식사 후 현지 직원 분의 차를 타고 드디어 리디아가 있는 곳으로 출발했다. 설렘과 긴장 두려움과 기쁨 등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출발했다. 가는 길에 많은 아이들이 보였다. 흙 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허름한 옷, 먹은 게 없어 배만 볼록한 모습을 보며 리디아도 저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라 눈물이 나오려 했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을 지나 흙으로 만들어 굽이진 길을 지나니 작은 마을이 나왔다. 마을은 생각보다 작았다. 차에서 내리니 마을 어른으로 보이는 분과 인사를 했고 곧이어 그분이 리디아를 불렀다. 20명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 틈에서 한 아이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달려오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다. 리디아를 껴안고 한참을 운 거 같다. 내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웠다.

리디아는 나이에 비해 많이 작았다. 리디아는 분홍색의 예쁜 옷을 입고 있었고, 첫 인상은 우리나라에서 보던 어느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저 같은 아이일 뿐인데 태어난 지역 차이일 뿐인데 왜 평범한 내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지 조금 괴로웠다.

인사를 한 후 준비된 자리에 앉아 마을 주민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영어를 못하는 나로선 그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알아듣기는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의미는 파악은 되었고 무엇보다 그분들 표정과 눈빛이 나에게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 주민들이 나에게 이런 큰 대접을 해주니 고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싶어 부담스럽기도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마을 아이들에게 준비한 공과 생필품을, 리디아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선물을 사면서 왜 이것보다 더 사질 않았는지 후회가 되었다. 특히 마을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을 적게 산 거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풍선을 몇 봉지 샀는데 한국에서 살 땐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막상 주고 보니 생각보다 빨리 없어질 듯 했다. 다행히도 공은 인원수에 맞게 구매해서 그나마 마음이 편했다.

리다아의 집에서 대접 해주는 밥도 맛있게 먹었다. 처음엔 입맛에 맞지 않고 손으로 먹어야 해서 혹시나 세균 감염이 될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참을 먹고 있으니 음식이 맛있었다.

식사까지 끝마친 후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물론 영어가 안되어 제대로 된 대화는 거의 못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조금 앉아서 아이들이 공 차고 노는 모습을 보며 다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리디아에게 해줄 말을 미리 외워두고 준비 했지만 막상 눈앞에 보고 있으니 생각도 나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분명 아이를 바라보며 뭐라고 했던 기억은 있는데 마음만 급해서 아무 말이나 했던 거 같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마을을 보며 머물렀던 몇 시간이 금방 그리워졌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마을은 점점 멀어져 가고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도 느꼈다. 만남에 대한 허무함이 아니라 짧았던 이 시간을 위해 준비해왔던 몇 달간의 긴 시간과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끝났다 생각하니 찾아온 감정이었다.

여행을 간다는 즐거움과 설렘보다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에 영어도 못하면서 혼자 가니 불안감이 더 많았던 일이었다. 순전히 아이를 만나기 위해 결심했지만 잠비아에 있는 9일간 계속 불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을 안고서라고 다녀올 만큼 분명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지금까지도 아쉬움은 계속 남아있어, 또다시 방문할 기회가 마련 된다면 그땐 많은 대화를 해보고 싶다.

화창한 7월 중순의 어느 날, 후원아동인 리디아와 그녀의 가족들은 꿈만 같은 후원자님의 방문에 설레어 했습니다. 후원자님은 어릴 때 어머니를 여윈 리디아 자매들을 보고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반가워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후원자님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이 그들에게는 생소하면서도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저희는 후원자님에게 리디아와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플랜이 마을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후원자님의 방문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 플랜잠비아 직원 데니스 줄루





세이프스쿨 29,900원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은 재해 대비 인프라 부족과 미흡한 교육으로 인하여 재해 대비와 대응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 875만 명의 아동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플랜은 The 좋은선물을 통하여 재해대응 능력을 갖춘 학교, 재해대응 안전교육과 위생교육을 제공하는 '세이프스쿨(Safe School)'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재해 발생을
우리 손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자연재해로부터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 세이프 스쿨 사업 학교 교장

보다 다양한 The좋은선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The좋은선물 추천 1



에이즈예방키트 29,900원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HIV/AIDS) 신생아 감염 예방
산모대상 HIV 진단 지원 및 방문서비스 제공
HIV 감염 산모 대상 예방약 지원

The좋은선물 추천 2



캄보디아 식수타워 4,000,000원

하루 1만 리터의 식수 정화
박테리아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
세면대 제공으로 아동의 손 씻는 습관을 향상
후원자님의 성함이 새겨진 명판



도서관
9,900원



영유아교육개발센터
19,900원



화장실
19,900원



모기장
9,900원



모자보건
39,900원



직업교육센터
39,900원



The좋은선물
바로가기



선물 선택



선물 후원



E-card 발송



선물 전달!



현대제철 미얀마 사회공헌활동 사업 소개

with **HYUNDAI STEEL**

미얀마 양곤에서 북쪽으로 약 630km 떨어진 만달레이 주, 이곳에서 현대제철은 플랜코리아와 함께 2014년부터 3년간 '만달레이 주 식수사업을 기반으로 한 파웅비라이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냥우 시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가량 떨어진 파웅비라이 지역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식수위생 환경개선, 지역사회 소득증대,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 크게 3개의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식수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각 마을 별 기본 1개, 최대 3개의 수원을 개발했고, 물을 저장할 식수탱크,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식수파이프 설치를 진행하였다. 해당 지역의 경우 미얀마 내에서도 가장 비가 적게 내리는 건조지대로 지금도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식수 공급을 위해 해당 활동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3

개 마을에서 개별 가정 내 급수가 가능해졌다. 또한 주민 및 학교 학생 대상 지속적 위생교육을 통해 사업초기 대부분의 주민이 야외배변을 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6개 마을 모두 야외배변 FREE마을(지역정부 인증) 지정을 앞두고 있다.

지역사회 소득증대를 위해 소액금융프로그램 지원, 농업 기술 지원, 종자은행 운영, 가축 백신접종, 직업훈련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가정의 소득증대 및 지속적인 마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활동은 마을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마을위원회 등의 주민조직을 구성하였고, 각 마을 별 서비스센터, 6개 마을 공동의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주민회의, 각종 교육, 지역정부 초청 등의 마을 행사가 이루어져 마을 스스로의 자립 및 자율적인 활동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현대제철은 올해 6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임직원 봉사단을 파견하여 학교 페인트 및 벽화작업, 교실 개보수 등 학교 환경개선 활동과 미장, 벽돌작업 등 마을 서비스센터 건축활동에 참여했으며, 학생 대상 미술교육, 미니운동회 등 체육활동을 진행하여 현지 아동 및 주민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6개 마을 내 시설 중 하나인 이야띠 마을 식수시설 완공식을 진행하여 냥우 시장 및 여러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정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함과 앞으로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으며, 주민들 모두 함께 모여 즐겁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로 냥우 시 가축 및 농림부서는 해당 활동들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학교가 깨끗해지고 책상과 의자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학교에는 화장실도 생겼어요. 학교에서도 화장실에 갈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학교의 벽화를 좋아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오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 Ma Sal Po (떼야창 학교 9학년 여학생)



“저희는 위생수업도 받고, 화장실도 생겼어요. 그리고 학교가 깨끗해지고 학교 벽에 예쁜 그림도 생겼어요. 또 학교에서 손 씻는 방법을 배웠고, 비누랑 칫솔로 매일매일 손을 씻고 양치질을 했어요. 이제는 배도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게 되었어요. 저와 제 친구들, 선생님들은 모두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해요. 마음속 깊이 감사합니다.”

— Kyaw Linn Naing (떼야창 학교 9학년 남학생)



“먼저 현대제철, 공동모금회, 플랜, 사업 파트너의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보살핌 덕분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화장실과 손 씻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책상과 의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활방식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식수와 위생에 관한 노래와 시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올바른 위생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교사들은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에 마음 깊이 감사 드립니다.”

— Daw Tin Mar Khine (떼야창 학교 교장)



개별가정 식수파이프



마을서비스센터



식수탱크



커뮤니티 센터

‘편지’가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리랑카의 우바 지역에 사는
위시미 비노द्या K. H. B.
(Wishmi Vinodya K. H. B.)입니다.
올해 만 8세이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요.
저는 노래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좋아요!



이번 호에서는 음악과 재능에 소질이 있는 스리랑카의 귀여운 후원 아동
'위시미'로부터 온 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후원자님을 위해, 위시미가 노래 대회에 나갔던 경험을
자랑하는 모습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꿈꾸는 아동편지 Vol. 3

위시미의 편지와 그림을 소개 합니다.

보고 싶은 후원자님께,
후원자님께서 보내 주신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뻐어요.
오랫동안 후원자님의 편지가 오기를 바라면서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받고 무척 기뻐어요.
우리 반에서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는 카비사이며,
그 애는 우리 교장선생님의 딸이에요.
그 애는 반에서 2등이고, 제가 1등이에요.
저희들 둘은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지역 노래대회에서 제가 일등을 했고, 도에서 실시한
노래대회에서도 또 다시 입상했어요.
2016년 6월 12일에 저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노래대회에 나가기 위하여 콜롬보에 갔었어요.
거기서도 저는 1등을 할 것으로 자신했어요.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음악과 미술에
아주 재능이 많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이신 디네쉬 선생님께서도
저의 재능을 확신하고 계세요.
저는 8살이에요. 유치원에 타닐 때 우리 부모님께서
찍어 주신 사진을 보내 드릴게요.
다음 편지와 함께 후원자님께서도 사진도 받고 싶어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후원자님께 신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후원아동 위시미 올림

후원자님의 편지는 후원 아동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 아동에게 큰 사랑을 보내 주시는
모든 후원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후원 아동의 편지에 대한 후원자님의 한 마디

“

안녕, 위시미.
답장을 늦게 보내서 미안해. 그 동안 조금 바빴거든.
학교 생활은 어떠니? 친구는 많이 있고? 어떤 친구와 가장 친하니?
그 친구와는 주로 뭘 하니?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니?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나의 선생님은 나를 많이 아껴주시고 두 팔로 안아주셨단다. 난 그게 정말 좋았어.
네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어. 넌 주로 뭘 그리니?
학교에서 그림은 얼마나 자주 그리니?
언젠간 나에게도 너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 편지에 꽃이나 나비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단다.
네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주지 못한 것 같아.
난 39살이고 도심 지역에 살아. 나도 그림 그리고 운동하는 걸 좋아한단다.
항상 건강하고 다음에 연락 할 때까지 잘 지내길 바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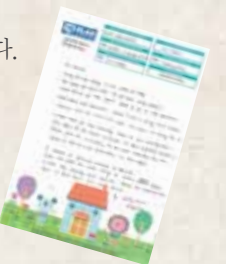
”

후원아동에게 편지 보내는 방법

1.이메일 letter@plankorea.or.kr 2.우편 (우: 13494)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플랜코리아

*한글 편지의 경우 매월 20일까지, 영어 편지의 경우 25일까지 도착한 편지에 한하여 당월에 발송됩니다.

*편지 선정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후원자님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후원 아동의 편지 내용은 후원자님의 동의 하에 공개 됩니다.
선정된 후원자님과 후원 아동에게는 소정의 플랜샵 선물이 발송됩니다.



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6년 한해도 플랜코리아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첫째

개인정보 등록 확인

-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록확인 및 수정: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 마이플랜 / [전화상담 1544-3222](#)
- ※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확한 개인정보 입력,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등록 마감일 이후 등록된 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둘째

발급 방법 안내

1. [홈페이지](#) ▶ 마이플랜: 2017년 1월 4일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
 2.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2016년 1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
- 2016년 납입된 후원금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2015년도부터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니 홈페이지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셋째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 기부금 세액공제율: 2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2천만 원 초과 분은 기부금의 30% 적용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 1544-3222 (내선: 313, 314, 317) / ✉ plan_a@plankorea.or.kr / 플랜코리아

후원금을 납부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 CMS 자동이체의 경우 출금되지 않은 후원금은 매 추가 출금일마다 재출금 시도됩니다.
- 카드 자동납부의 경우 승인되지 않은 후원금은 매월 10일, 말일에 재승인 시도됩니다.
- 납부되지 않은 지난 후원금도 함께 출금 시도되며, 출금일 전 SMS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후원금 납부를 원치 않거나 합산하여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플랜코리아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납부 및 출금 안내

납부방법	정기출금일	추가 출금일
CMS(계좌자동이체)	25일	5/10/15/말일
신용카드	15일	10/23/말일 하루 전

Enjoy Plan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틀린 그림찾기



틀린 그림(5개)을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

참여방법 1



플랜코리아 페이스북
Enjoy Plan 이벤트 페이지에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업로드!

or

참여방법 2



카카오톡에서
'플랜코리아'를 친구 추가한 후,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전송!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2017년
봄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지난 호 정답▶

가을호 이벤트 당첨자
이성희, 최현정, 안자영, 지은주, 구찬모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플랜코리아 소식

삼성전자, 인도 빈곤아동을 위한 교육공간 ‘나눔빌리지’ 완공식 진행

플랜코리아와 삼성전자가 인도의 빈곤지역 바이드푸라 마을 아동들이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나눔빌리지’사업을 완료했다. 나눔빌리지는 삼성전자가 특정 국가의 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학교와 보건소, 복합 체육시설 등을 건립 및 지원하고 있다. 바이드푸라에 사는 아동들 중 60%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 이에 지난 2014년부터 커뮤니티센터 건축이 시작됐다. 2015년에는 교실, 강당,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과 식수 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했다. 현재는 2차년도 사업으로 학교 교실에 각종 기자재를 공급하고, 학교 개보수 및 아동과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인도 지방 교육부가 운영하게 될 예정이며, 현재 120명인 학생수가 400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 인도 델리 ‘학교 환경 개선 사업’ 기공식 진행

플랜코리아와 삼성중공업이 인도 델리 트릴록푸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델리 동부 공립 초등학교는 열악한 학교 환경 및 부족한 교실,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 식수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학교 환경 개선, 식수 위생시설 개선 등의 학교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델리 현지에서 진행된 기공식에는 삼성중공업 임직원과 인도 삼성중공업 설계센터 임직원들도 참석해 사업의 시작을 축하했으며, 임직원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학교 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학생 440명을 포함한 11명의 교사들과 인근마을 600여 가구 지역사회 주민들 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인 걸그룹 모모랜드 홍보대사 위촉

신인 걸그룹 모모랜드가 플랜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모모랜드는 일곱명의 멤버로 구성된 걸그룹으로 Mnet ‘서바이벌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데뷔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데뷔음반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하는 인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데뷔 전부터 ‘지구촌 아이들의 꿈을 함께 응원하고 싶다.’고 밝힌 모모랜드는 지구촌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진행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베트남 아동 7명과 결연을 맺어 플랜코리아 후원자로서의 첫걸음을 함께 했다. 후원아동이 살고 있는 베트남 타이응옌 주의 주 펙루엣 마을 방문 및 팬들과 함께 마을에 필요한 부대시설 건립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비롯해 개도국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파키스탄의 여성 전용 릿샤 프로젝트

파키스탄 폭탄 차크왈 지역에서 여성 전용 릿샤 서비스 가 시작되었다. 플랜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컬러인 핑크색을 입은 릿샤와 함께, 여성 기사들과 여성 승객들은 도시 내부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파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혼자서 외출하거나 일을 하고 타인을 만나는 것을 금지해왔다. 현재도 여성이 혼자 길거리를 다니면 남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 여성 중 4분의 3은 안전한 교통수단이 없어 외출하지 못하고 있다. 플랜은 이에 여성 릿샤 기사를 육성하기 위한 운전 교육과 경제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 기사들은 여성들에게 안전한 이동을 제공하고 생기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된다.



플랜지구촌 소식

플랜, 제71회 UN총회에서 ‘여아 인권 신장’ 목소리 높여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서 제71회 유엔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 세계적 움직임’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플랜은 총회에 참석해 2030년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여자아이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외되고 드러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소녀들과 여성들을 위한 더 강력한 정책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플랜은 성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이 데이터는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맞이해 보고서로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여아 및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시 의제, 소녀들에게 더 안전한 도시를 위하여

9월 17일~20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향후 20년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도시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UN 해비타트 III 총회가 열렸다. 다양한 정부 관계자와 도시 전문가들은 열띤 논의를 진행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정책 가이드로 ‘새로운 도시 의제’를 채택했다. 플랜은 회의에서 도시를 소녀들에게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소녀들의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반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플랜의 도시 발전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하며 플랜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인도 델리에서 버스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폭력과 차별이 세계 곳곳에 만연해있다. 이번 새로운 도시 의제 채택은 소녀들에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세계 정부 관계자들이 최초로 인지했음을 말해주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북팔, 베트남 아동 독서 환경 개선

웹소설 플랫폼 ‘북팔’과 베트남 도서관 및 도서관 자원들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 ‘더어 마이 팬’ 프로젝트의 일환인 ‘나눔 선물 프로젝트’는 작가와 독자가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크다. 북팔 관계자는 “우리는 모바일을 통해 웹소설을 쉽게 읽고 쓰지만,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 플랜코리아와의 협약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도서관 및 도서관을 지원하게 될 지역은 베트남 광빈주 민하오시 트롱 하오 no.1 초·중등학교다. 산악지역에 위치한 트롱 하오는 빈곤율이 87%, 민하오시의 16개 지구 중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이다. 트롱 하오 no.1 학교에는 333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에게 향상된 도서관 환경에서 마음껏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 세이프스쿨 지원사업 완료

플랜코리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필리핀 동사마르 오라스 지역에서 ‘세이프스쿨’ 지원사업 완공식을 진행했다. 세이프스쿨 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다발성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고,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해 대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필리핀의 섬들은 지진과 화산활동이 빈번한 형태 평양 화산대에 위치해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소외된 지역에 있어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 및 대처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 사업이 진행된 필리핀 동사마르 오라스 주는 수도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900km 떨어진 사마르 섬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빈곤율이 높은 지역이다. 세이프스쿨 기준에 적합한 학교 건물 및 위생시설 건축과 더불어 갑작스런 재난상황에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대상으로 교내 재난대비 모의훈련,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지구촌 소녀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핑크 트리

지구촌 소녀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핑크 트리’가 서울 강남의 심장 코엑스 광장에 세워졌다. 작년에 이어 플랜코리아는 ‘지구촌 소녀들이 행복해지는 희망의 핑크 트리’라는 콘셉트로 ‘핑크 트리’를 세우고, 지구촌 소녀들의 웃는 얼굴 달기, 희망 메시지 적기, VR 영상으로 개도국 아이들의 일상 보기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플랜코리아는 ‘희망의 핑크 트리’를 통해 지구촌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가는 여자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지난 3일에는 플랜코리아 김성령, 김대희 홍보대사도 참석해 관람객들을 만나는 깜짝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15일 진행된 2016 무역센터 겨울축제 개막식에는 ‘글로벌 사랑나눔’ 기부금 증정 행사도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남수단, 어린이보호 시급

7월 초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서 대통령측 정부군과 부통령측 반군 사이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과 유엔평화유지군 300여 명이 사망했다. 남수단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랫동안 내전이 지속된 국가로 2011년에 수단으로부터 독립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남수단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고, 난민의 70%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이다. 유니세프는 2013년 갈등이 발생한 이후, 대략 40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하고, 최대 1만 5천여 명의 아이들이 소년병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계속되는 기복은 아이들이 극심한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고, 콜레라를 비롯해 수인성질환의 급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플랜은 전 세계의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실효적이고 가능성 있는 정책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 화장실의 날, 화장실은 우리의 슈퍼히어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야외배변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11월 19일 화장실의 날을 맞이해 플랜은 화장실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사람이 하루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는 평균적으로 4회~10회 정도이며, 일년이면 약 3,650회를 간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약 2,900kg에 달하는 배설물이 쌓인다고 한다. 화장실은 지난 200년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20년 이상 늘려주었다. 하지만 아직도 24억 명은 위생적이지 못한 곳에서 살아가며 11억 명의 사람들은 야외에서 배변을 해결한다. 개발도상국 초등학교 3분의 2는 남녀분리형 화장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들의 출석률과 관련이 깊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보다 설사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아이들이 더 많고, 화장실과 같은 위생시설을 갖추게 되면 설사병의 발생 확률이 37.5% 낮춰진다고 한다.



세계 장애인의 날, ‘Protect Us’ 보고서 발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플랜은 제 2회 세계 장애인 참여 회의를 네덜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12월 6일~8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모두 함께 포함시키기!’ 장애 소녀, 소년들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였다. 이를 위해서는 또한 모두를 포용하는 교육 환경 조성하고 ‘성 평등, 소녀들의 권리 및 사회 참여’ 캠페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의 수는 약 1억 5천 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지역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극히 빈곤한 환경에서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플랜은 이러한 위기에 처한 세계의 모든 장애 아동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생활 보조 기구 등을 지원하며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프로그램, 종합 애드보커시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플랜과 함께 만드는 변화

아동후원은 프랑이 꿈을 실현하는 걸 도왔을 뿐만 아니라 프랑의 이웃과 지역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고, 집에서 가깝고 큰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직업을 사랑해요.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저의 고향에 큰 힘을 보탬 수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일이에요.”

베트남 북부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프랑의 가정은 그녀의 교육을 지원해줄 만한 고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은 플랜의 후원을 받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열심히 공부해 의과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프랑은 대학 졸업 후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었고, 지역보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은 현재 공공건강 통신물을 제작해 모성 건강, 출산, 어린이 건강 등에 대해 인식을 재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으로 어린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 플랜코리아의 기존후원자시면 체크해주세요!

이름: (한글) (영문) □남 □여
주소:
전화번호:
e-mail:

□ 해외아동정기후원

저는 _____명의 아동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희망대륙 □선호사항없음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성별 □선호사항없음 □남자어린이 □여자어린이
서신교류언어 □한국어 □영어

□ 1만원 특별정기후원

Because I am a Girl 소녀들의 꿈 지원하기

개발도상국의 많은 여자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와 개인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 채 차별과 빈곤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한 여아 권리 신장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후원금결제방법

□ 자동이체 □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후에 연락을 드려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19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회원 등록 및 소식 제공,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후원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플랜코리아 카카오톡 @플랜코리아로 보내주세요.

후원문의 ☎ 1544-3222 ✉ kno@plankorea.or.kr 🌐 www.plankorea.or.kr

The 좋은가게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볼펜



여자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볼펜이 출시되었습니다.



볼펜 구매를 통하여 여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날개 모양 안의 크리스탈은 스와로브스키사의 크리스탈을 사용
크기: 133×10mm | 색상: 화이트/핑크/블랙 | 재질: METAL

The 좋은가게의 수익금은 개도국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금 The 좋은가게에서 만나보세요.

사랑스러운 후원아동을 위한 선물,
The 좋은가게에서 구매하세요.



세계지도



생일카드



꽃말엽서



후원아동 선물꾸러미

The 좋은가게

www.planshop.co.kr 02.516.5107



후원문의 1544-3222

www.plankorea.or.kr